

대우자동차 사태와 완성차 4사노조 공동투쟁

조건준

금속산업연맹 정책2국장

1. 투쟁 경과

99년 8월 대우그룹의 위기가 드러난 후 11월 25일 워크아웃 약정이 국내 채권단간에 합의되었으며 정부는 워크아웃과 나란히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12월 22일 자동차 완성사 대표자들은 회의를 개최하여 '대우·쌍용 자동차 해외매각반대'를 목표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완성사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한 것은 대우쌍용자동차가 해외업체에 넘어간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를 같이 느꼈기 때문이다. 즉 해외 거대 자동차회사가 국내업체를 인수하면 기아·현대 자동차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한국의 부품회사들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점, 이

때에는 대규모 고용불안이 몰려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1월 12일 연맹과 완성사 대표자들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반대 투쟁'이 현대자동차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투쟁 방향을 매각반대를 넘어 대안으로서 '공기업화'를 구체화하기로 하고 <자동차산업정상화 및 해외매각반대와 자동차산업 노동자 생존권 사수 공대위>로 명칭을 정식 확정 하였다.

또한 3월말 4월초를 총력투쟁기로 잡고, 이에 따라 1~2월중순을 투쟁준비기, 2월 중순에서 3월을 준법투쟁 돌입기로 하여 단계적으로 총력투쟁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현대자동차노조

12월 22일 자동차 완성사 대표자들은 회의를 개최하여 '대우·쌍용 자동차 해지계간대'를 목표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사진은 집회에 참가중인 현대자동차 조합원들.

투쟁준비기에는 주로 세가지 측면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우선, 대우자동차 해의매각반대 논리와 공기업화 요구에 대한 구체화 노력이 진행되었다. 둘째, 연맹과 공대위는 신문광고, 공청회를 비롯하여 총리실을 비롯, 금융감독위원회, 산자부, 재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면담을 요청 및 각 정당을 방문하여 입장을 확인, 쟁점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셋째, 각 노동조합별로 공동투쟁에 따른 각 단위노동조합별 결의를 추진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투쟁준비기의 사업은 2월 19일 최초의 한국자동차 산업의 전 완성사 노조의 간부가 모이는 합동간부 수련회로 집중되었으며 투쟁의 핵심적 축인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연맹임원의 동시 교육 실

시 등으로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준법투쟁을 비롯한 낮은 수준의 쟁의 행위를 하기로 한 2월 중순 이후 대우자동차는 2월 15일 3시간 부분파업을 시발로 2월 29일 서울역 집회를 비롯한 4사가 참여하는 공동집회 및 부분파업, 산업거부투쟁을 완성4사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한편 천막농성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총력투쟁기에 들어서면서 우선 완성사들의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우자동차가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4월 6일 완성4사의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하여 4월 12일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하였다.

투쟁과정에서 정부에 지속적인 대화요구, 결국은 금감위원장과의 면담 및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 졌으나, 정

부는 끝내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선회하면서 총선이 끝난 후 4월 25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경찰을 투입하여 노조 지도부를 강제 연행하였다. 이에 대우·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즉각 파업으로 맞섰으며 현대·기아자동차와 금속산업연맹의 수도권지역본부에서는 대우자동차 파업을 지키기 위한 사수대를 파견하였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4월 총선을 겨냥한 총력투쟁이 끝났을 뿐이며, 해외매각을 막기 위한 투쟁은 5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새로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평가하는 적절한 시점은 아니나 간략히 4.13 까지의 투쟁 의미와 과제를 평가하기로 한다.

2. 완성사 공동파업의 의미

첫째,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해외매

각에 타격을 가하였다.(표 1 참조)

둘째, '공장가동 긴급정상화'와 '국민대책기구설치'라는 우리의 두가지 요구 중 '긴급운영자금투입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채권단이 합의 발표하였다. 이는 이후 실제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과제가 남았으나 하나의 성과이다.

셋째, 노동조합을 배제한 대우·쌍용자동차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정부와 채권단에게 각인시킴으로서 이후 투쟁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표 2 참조)

넷째, 사회적으로 자동차산업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성과를 남겼다. 국민의 67%(교육방송조사) 또는 64%(민주노총.한길리서치)가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대우·쌍용자동차 문제를 계기로 '국부유출' 논쟁이 불붙어 정치쟁점화함으로써 대우·쌍용자동차 처리문제는 확고한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표 1]

입 장 변 화	
정 부	해외매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 해외매각을 결정해 놓고 추진한적 없다.
해외업체	P&A방식의 인수 → 일부인수 → 전부인수 → 컨소시엄구성과 기술개발 및 고용보장 시시
채 권 단	입찰계획에 따른 매각 추진 → 노동조합과 4자간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

[표 2]

입 장 변 화	
정 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고 채권단(구조조정협의회)이 처리한다. → 감감위원장, 노동부장관 면담 수용
채 권 단	입찰계획에 따른 입찰 진행 → 4자간협의기구는 수용

이러한 대외적인 성과와 함께, 노동조합운동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처음으로 완성4사가 공동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산업차원의 연대투쟁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성과이다. 완성4사 공동파업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모든 비관적 전망과 탄압을 뚫고 투쟁을 성사시킴으로써 안팎의 불신을 극복하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연대파업이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정부나 채권단에게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완성사의 투쟁은 IMF 2년간 후퇴를 거듭해온 민주노조진영의 투쟁의 포문을 열어 2000년 투쟁전개에 따라서 더욱 더 그 값을 발휘할 것이냐 일단 민주노총과 연맹의 5월총파업을 비롯한 투쟁의 분위기를 자리잡도록 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또한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계획을 가진 연맹으로서도 기업별 노조간 연대투쟁을 통해 산업적 단결의 기초를 세웠으며, 투쟁을 통한 산별건설로 나아가는 일정한 기반을 갖추는 출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총선공간에서 공동파업을 성사시킴으로써 한편에서는 민주노조진영이 '독표를 위한 활동'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대중투쟁의 공간을 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출마한 노동자 후보들의 유리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 4월 완성사 공동파업의 과제

연맹과 완성사노조는 경제적 조건의 유리함, 정치적 공간의 활용, 연대투쟁이라는 주체적 조건의 유리함을 활용하여 총선전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매각중단, 정부가 참여하는 국민대책기구설치' 등 당면목표를 쟁취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는 '국민대책 기구 설치' 요구를 통해 정부의 운신 여지를 열어 협상을 유인하는 한편, 조합원에게는 쟁취가능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매각을 무력화한다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나라당이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선거국면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배수진, 국민대책기구에 정부가 직접 포함되는 것은 실질적인 매각 방침의 변동으로 읽혀진다는 대외신인도에 대한 부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준비하면서 국면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등에서 우리의 '국민대책기구 설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점에서 한편에서는 '대외신인도'를 평계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해외업체와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직접 공격하는 투쟁대상의 확대와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채권단과 우리의 시각차가 여전하지만 공론화된 '협의회기구'라는 누구누가 인정하는 틀을 보다 발전시켜 '정부가 참여하는 국민대책기구의 구성' 또는 '대우·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재출발' 국면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두번째로는 해외매각반대와 공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4.13 총선 전까지의 투쟁성사 자체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이후 중장기 투쟁전선의 이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총선전 투쟁이 총선 이후까지 강력하게 전개되기 위한 투쟁의 확대와 강화 노력이 완전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의 미약한 활동을 강화하고, 연맹·민주노총의 보다 강력한 전조직적 공동행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세번째로는 다른 투쟁시기와 달리 총선 공간을 활용하는 투쟁인 만큼 '정치투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상대적으로 '여당에 대한 위력적 압박', '총선후보 낙선 운동'이 조직적이고 규모있게 진행되지 못하여 '총선공간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최대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였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여야의 후보들이 해외매각반대에 서명을 하였던 사실을 활용하여 이후 국회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특별결의 채택을 요구하면서 쟁점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는 파업투쟁 과정에서 해외매각반대, 산별, 정치세력화 등 교육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합원의 단결과

의식의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투쟁력을 유지하고 투쟁 전망을 공유하는 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후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4.13 총선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공유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속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완성4사 공동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미 사측과 정부는 고소고발 및 체포영장 발부, 구속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비록 여당이 승리하지 못하였으나 탄압이 예상되고 있다. 4월 25일 대우자동차노동조합에 경찰 투입 등의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투쟁전선의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4. 대우자동차에 경찰 투입과 향후 전개될 투쟁

정부는 4월 25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경찰을 투입하여 농성중이던 간부들을 연행해 갔다. 이는 집단이기주의 운운 하면서 엄단조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의 관철의 연장 선이다. 그러나 총선 직후 바로 탄압해 오지 못하다가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치밀한 계산 속에서 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르노-삼성의 매각이 '혈값매각'으로 나타나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는게 급했다. 해외매각과 관련된 논쟁은 실제 '삼

상-르노'의 매각협상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투자액(최소 4조이상)은 물론 청산가치 1조에도 크게 못미치는 6천2백억이 최종안이었다. 이에 따라 헐값매각에 대한 우려(『한국경제신문』 4월 24일자 등)와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급했다.

정부는 국부유출논쟁의 전원지인 대우자동차의 불을 끄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대우차 투쟁을 잠재우려면 지도부를 숙여내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미 강제해고 조치까지 내렸으며 이번에는 강제연행을 감행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나라당과 영수회담을 통한 정국운영 합의로 한나라당의 발목을 붙잡았다. 24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집단지기주의 입단'에 대한 합의를 하는 등 총선후 1당이 되지 못한 김대중 정권은 겹겹이 한나라당을 끌어 안아 정국불안의 요소를 미리 제거하면서 탄압 조건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의 정책은 국부유출 논쟁에서도 나타난 바 정부의 정책과는 달랐다. 그러나 여야 영수 회담으로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동시에 대우차를 강경 탄압하더라도 기아현대가 입단협 협상국면에 돌입, 발이 묶여 있어 강도높은 연대투쟁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때에는 대우차 현장의 분위기도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설혹 메이데이 투쟁, 5월총파업 등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전개되더라도 이

후 정상회담카드로 국민을 통합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을 '민족적 대사'를 거스르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갈 수습카드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정부는 원성차 투쟁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부노조-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책기구 수용을 거부하고, 대신에 정부가 빠진 노조와 재권단, 대우자동차 경영진, 대우구조조정협의회 등 4자간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대화 가능성마저 남아 버리고 있다.

또한 대우자동차를 해외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4.17 대통령 담화 및 경제부처 장관들은 8월말까지 매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성사들의 역사적인 파업의 성과가 자칫하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서는 2차 투쟁은 원성사들이 현실적으로 임금 및 단협교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투쟁을 확대함으로써 2차 총력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는 원성사들의 파업이 중심적인 투쟁방식이었다면, 해외매각저지 범국민 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대국회투쟁 등 각계 각층으로 확산하는 투쟁을 통해 여론을 확산, 2차 총력투쟁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